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lt;제2부&gt; 문화 향기 현장 속으로

(13) 한국메세나협 '기업과 예술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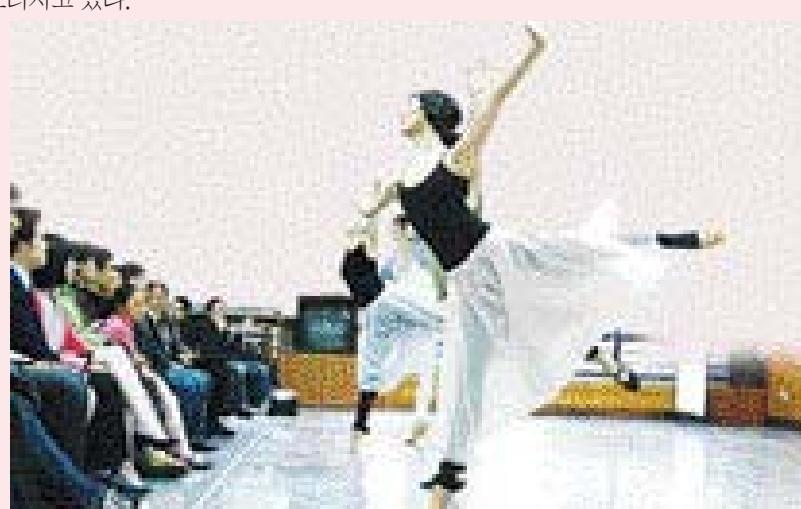
지난 6월말 서울 금호아트홀에서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1차 결연식'이라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사)한국메세나협의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은 기업과 문화예술 단체의 1대 1 결연 사업으로 기업들의 문화를 통한 사회 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기업·중견기업과 예술단체 12쌍, 중소기업과 예술단체 25쌍 등 총 37쌍이 결연을 맺어 역대 최다 커플이 탄생했다. 지난해에는 1차 6쌍, 2차 19쌍, 3차 22쌍 등이 결연을 맺었었다. 또 LG화학과 극단 타루, (주)실크로드시엔터와 유니버설밸레단 등 12쌍이 올해도 재결연하는 등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예술단체들의 경우 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오페라단이 (주)코스모스 악기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재결연을 맺었고 (주)한테크 역시 2년 연속 (사)광양버꾸들이 보존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흥일전자는 순천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새로 결연을 맺었다.

임해철 광주오페라단장은 "항상 신경을 써주고 우리 단체를 지켜봐주는 기업이 있다는 게 마음 든든하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어 참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예술단체나 개인을 지원한 금액에 비례해 예술단체에 추가로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도 두드러지고 있다.



CJ문화재단과 결연을 맺은 서울발레시어터의 'CJ 발레 교실'

## ▲ 군부대, 학교, 보육시설 찾아가는 메세나

아무래도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의 메세나 참여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기업들은 한국메세나협의회와 손잡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일부 기업들은 결연을 맺은 예술단체들과 찾아가는 메세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부터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 공연을 선보이는 '사랑이 꽃피는 콘서트'를 진행중이다. 지난해 무안을 비롯해, 충남 태안 등에서 5차례 콘서트를 열었던 한국토지공사는 호응도가 높아 올해 부터 콘서트를 10차례로 늘렸다.

지난 3월 해남에서 극단 우금치의 '정아 청아 내발 청아'를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고흥 남포미술관 앞 광장 등에서도 공연을 가졌다.

한국토지공사는 또 미술 꿈나무들에게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피카소의 꿈'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퍼니밴드와 새롭게 결연을 맺었다.

소니코리아는 지난 2005년부터 '소니드림기자 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지역의 초등학교를 찾아가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진행했던 데 반해 올해는 공연 관람과 함께 '소니 스쿨 씨어터'라는 새로운 메세나 활동도 시작했다.

소니코리아가 학교에 기증한 흡시어터 기기와 프로젝터, 소니픽쳐처스 흡엔터테인먼트코리아 등 소니 관련사들이 제공한 영화, 음악 컨텐츠를 이용해 교실을 영화관처럼 꾸며주는 '소니 스쿨 씨어터'는 올해 첫번째 행사를 개교 100주년을 맞은 강원도 흥천초등학교에서 첫 시연회를 가졌다.

한국그룹은 해마다 여름방학 때면 '한화 신나는 예술 캠프'를 열고 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및 새터민,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 결혼 이민자 가족 등 다문화 관련 센터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고흥에서 열린 한국토지공사의 '사랑이 꽃피는 콘서트' 공연 모습.

## 토공·LG화학 등 메세나 사업 열정... 중소기업도 점차 활기

미술, 연극, 음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오는 16일부터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3차례에 걸쳐 캠프가 진행되며 공공미술 프리즘의 미술수업, 체험예술공간 꽃밭의 연극수업, 문화마을 틀소리의 전통문화와 국악수업, 아동청소년 연극집단 '무도'의 연극 '반쪽이' 공연 등이 펼쳐진다.

올 캠프에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무지개지역아동센터와 주산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게 됐다.

또 LG연암문화재단은 LG아트센터와 함께 'LG 아트 클래스'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타악그룹 '공명', 아동극단 '달과 아이'의 '페포드'로 만드는 연극, 한국아카펠라 연구회의 '보이스 오케스트라' 등을 악, 연극, 무용 등을 4주~8주간 가르친다.

그밖에 SC제일은행은 지역 사회복지단체를 직접 방문, 공연을 펼치는 '사인 앤 체리티 콘서트'를 열고 있으며 대림산업도 '꿈나무 예술기행'을 진행중이다.

## ▲ 뮤지컬, 연극, 미술 등 장르 다양

올해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을 통해 새롭게 인연을 맺은 기업체와 단체들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5월부터 올 말까지 창원, 전주 등 8개 지역에서 '메리 메리츠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지하철역이나 공원, 야외 공연장 등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콘서트에는 결연을 맺은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와 모던팝스오케스트라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는 '스쿨콘서트'를 진행중인 LG연암문화재단은 올해는 결연단체인 극단 파임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춤향전과 심청전을 결합한 국악뮤지컬 '인당수 사랑기'를 무대에 올린다.

올해부터 전국 지역으로 대상지가 확장돼 광주 지역의 경우 전남고등학교에서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LG화학 역시 결연 단체인 국악뮤지컬 집단 '타루'와 군부대를 직접 찾아가 뮤지컬을 공연하는 '뮤지컬 힐리데이'를 진행중이다. '뮤지컬 힐리데이'는 지난해 전국 10개 육군부대에서 처음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대상은 육·해·공군으로 확대, 타루의 창작 뮤지컬 '시간을 파는 남자'를 공군 제 10전투비행장, 해군교육사령부 등에서 선보였다.

대기업들에 비해서는 소소하지만 중소기업들도 움직임도 늘고 있다.

올해 결연식에서는 (주)돌실나이와 은세계 씨어터 컴퍼니, 선일종합수처리(주)와 백현순 무용단, (주)야후전기와 호남오페라단이 결연을 맺은 등 13개 퍼플이 새로 인연을 맺었다.

/서울=김마은기자 mekim@kwangju.co.kr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이엔에스와 예술을 애무대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가곡 교실'을 연다.

또 CJ문화재단과 결연을 맺은 서울발레시어터는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CJ 발레 교실'을 개최, 발레에 대한 기초지식, 발레 감상, 발레 배워보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양버거들이 보존회는 한테크 직원들에게 전통문화예술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

/김마은기자 mekim@kwangju.co.kr

## “우리는 한가족” 결연 기업-예술단체, 해금·발레 교실 등 운영

## '해금교실, 발레 교실...'

결연을 맺은 기업체로부터 단체 운영, 작품 제작과 관련한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들은 기업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주회 초대권 배포

나 기업 고객 관계 음악회 개최 등이며 최근에는 다양한 강습회를 진행하는 등 프로그램도 다채로워졌다. 물론 예술단체들은 기업체의 문화홍보대로 적극 나서는 것은 기본이다.

서울국악관현악단은 결연 기업인 LG생

활건강 방문 판매직원들을 위한 해금 교실을 열었다. 광주 등 전국 5개 도시 판매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고흥곤씨가 제작한 해금을 지급했다.

올해 재결연한 공기정화 설비기업 세일

##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선량부모와 달달한 모자를 누기 권리하셨습니까?

\* \* \* \* \*  
\* \* \* \* \*



## 보람상조와 함께 일 새가족을 모십니다

## 복합 풍물 페스티벌

## 복합 풍물 페스티벌

## 복합 풍물 페스티벌

## 복합 풍물 페스티벌

남양주 시립 관현악단 010-9566-0114

